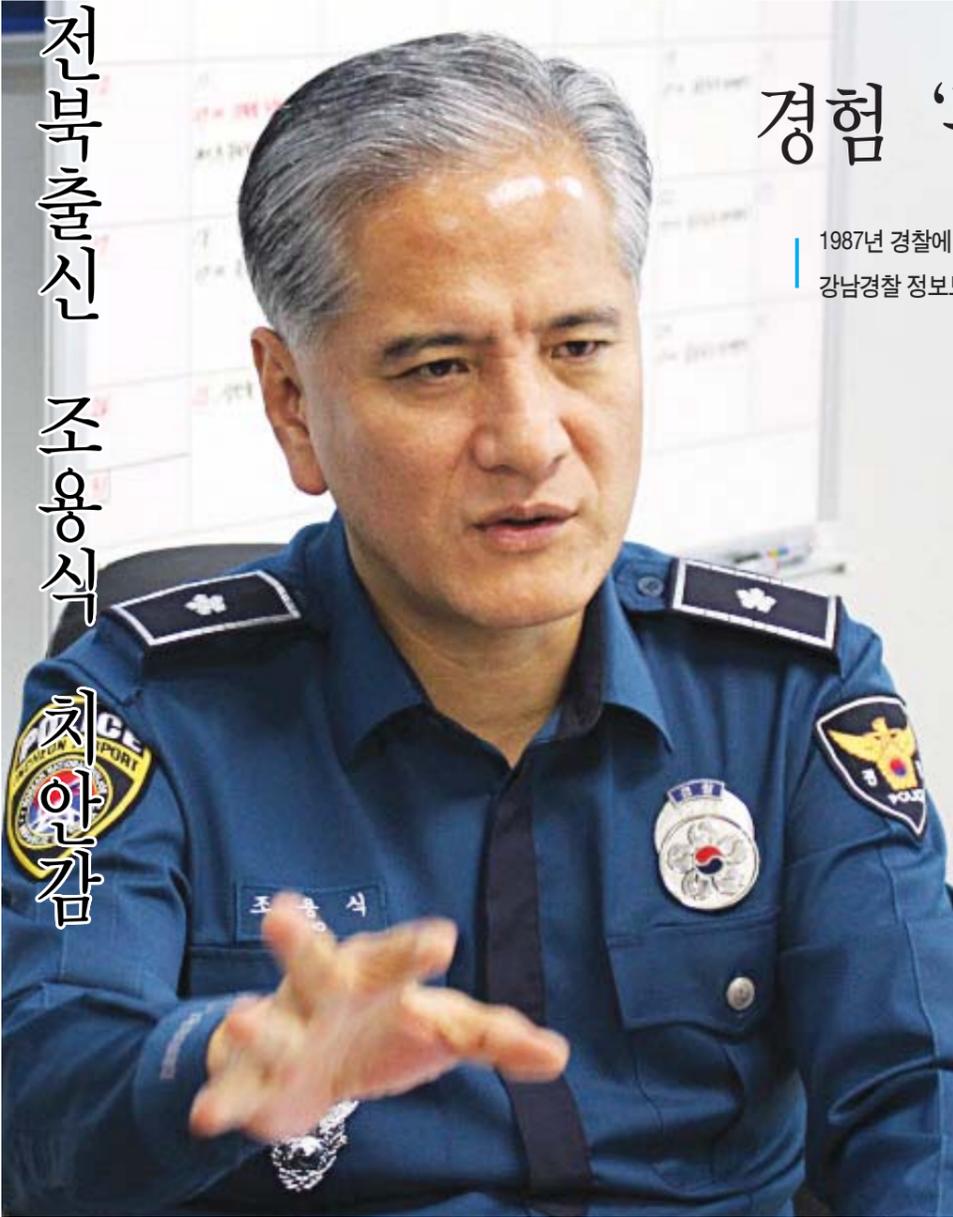


전북출신  
조용식  
치안감



# 경험 '풍부' · 업무추진력 '만점'

1987년 경찰에 첫 발 이후 경기 일산 수사과장  
강남경찰 정보보안과장 · 김제경찰서장 등 두루 거쳐

김제시 봉남면 출신 조용식 서울청 경무부장이 치안감으로 승진, 서울청 차장으로 내정됐다. 전북출신 치안감 승진은 지난 2015년 강인철 전북경찰청장 승진 후, 3년 만이다. 조용식 치안감 승진 내정자는 1987년 경찰에 첫 발을 내딛었으며 ▲경기 일산 수사과장 ▲서울 수사 정보보안과장 ▲강남서 정보보안과장 ▲송파서 정보보안과장 ▲동작서 정보과장 ▲서울청 정보계장 ▲전북청 경무과장 ▲김제경찰서장 ▲익산경찰서장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장 ▲수서경찰서장 ▲인천국제공항경찰대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겸비했다는 평가 속에 그 어느 누구보다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며 직원들의 사기를 추스르는 등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지만 공정하고 합리적 이면서도 소통과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밀그림으로 국민들에게 만족을 넘어 감동 치안으로 책임을 다하는 프로 경찰상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조용식 치안감 승진 내정자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경찰의 최고 가치이자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등 꼼꼼한 업무추진력 및 세심한 성격으로 주위에 따르는 인재가 많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또 인천국제공항경찰대장을 역임하는 동안 유사시 신속하게 공항 내 안전을 책임지는 등 내·외국인 여행객들에게 경찰이 항상 곁에 있는 공항이라는 안도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전국 공항 가운데 최초로 제1여객터미널 3층 중앙에 경찰관 13명과 의경 9명을 3교대 근무로 편성한 치안센터를 개소하는 족적을 남겼다.

가족으로는 아내와 1남 1녀를 두고 있다. 한편, 조용식 치안감 승진 내정자는 김제경찰서장으로 재직 시, 남다른 고향사랑으로 시민들과 공감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 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많은 호응과 공감을 얻었다. /강석훈 기자



누구보다 직분에 충실  
감동 치안으로 프로 경찰상 구사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으로  
주위에 따르는 인재가 많아



BUAN MARKET  
부안상설시장

2018  
눈송이  
축제

2018. 12.14(금) ~ 16(일)  
부안상설시장 야외분수대 일원

개막식·와글와글 시장가요제(JTV)  
2018. 12.14(금) 14:00

경품추첨, 이벤트, 문화공연, 체험, 먹거리 장터, 특산품 판매

문의)부안군 미래창조과 T.063-580-4230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부안상설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단 T. 063-717-1325

| 주최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라북도 | 부안군 | | 주관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 부안상설시장상인회